

고려해운

창립 54주년 기념식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4월17일 창립 54주년을 맞아 서울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박정석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해운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고유가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며, “임직원간에 단합하고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자 및 육·해상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글로벌스

제3회 한국 RFID 산업화 대상 수상

종합물류인증기업 글로벌스(대표 김치웅)가 지식경제부 주관 '제3회 한국 RFID 산업화 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2006년부터 금년 2월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IT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RFID를 이용한 물류정보화 혁신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스는 2006년 지식경제부 주관, 한국전자거래협회가 주최하는 “IT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서 1차 사업으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와 글로벌스 CKD센터에 이르기까지 적시납입체제(u-JIT) 및 납품 차량 HIGH PASS 제도 등의 실시간 협업 조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제11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2차 사업에서는 RFID시스템을 해외 현지 공장까지 확장, 국토해양부 항만 RFID 인프라 정보를 이용하여 전 물류 거점의 종합 Tracking관리를 통한 글로벌 SCM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남산 힐튼호텔에서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글로벌스 김치웅 사장은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물류인프라와 IT부문 투자로 물류혁신을 이루어 고객사 비용 절감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스는 이번 구축사업으로 공급납기 향상 및 물류비, 재고비용 등 11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와 생산성의 향상을 이루었으며, 향후 해외 전 공장 확대 시 약 4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와 해외 현지공장 간 전 Supply Chain상의 물류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one-stop total service의 강화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GS1 바코드 도입 20주년 기념 ID 리더스 그룹 제4차 회

2006년 4월 24일(화) 장소: 만리나일 서울 힐튼호텔 주최: GS1 주관: GS1



대한해운

금년 1분기 영업이익 1,110억원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이 올해 1분기 1,11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무려 13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해운이 최근 발표한 2008년 1/4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대한해운을 올해 1분기에 6,810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1분기 매출 3,600억원 보다 89%나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110억원으로 지난해 470억원보다 무려 136.4% 증가했다.

대한해운은 올해 경영목표를 매출은 30% 증가한 2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60% 증가한 5,2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는데 올해 1분기에 각각 89%, 136% 증가를 시현함에 따라 올해 경영목표에 달성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대한해운은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과 관련해 매출은 운임을 상승과 환율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200억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저렴하게 확보한 용선선을 적기에 대선함으로써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벌크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한 전용선대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급변하는 건화물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도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3.18% 감소한 605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해운은 1분기 원화약세에 따른 외환환산손실이 발생해 경상이익이 소폭 감소했으나 단순한 평가상의 수치 항목이므로 실제 영업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해운 관계자는 “현재 용선선박 중에서 대선이 70% 이상 완료 되었고, 이미 확정된 영업이익이 2007년 한해의 영업이익 수치를 이미 달성했다. 특히 중동시장의 건설경기 붐으로 인한 철강

수요 증대와 곡물 운송의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황은 상승국면으로 가고 있어 연초 발표한 2008년도 사업계획은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009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C&중공업

제1호선 용골거치식 거행



C&그룹 계열사인 C&중공업(대표 임갑표)이 4월 28일 제1호선에 대한 용골거치식(Keel Laying)을 갖고 본격적인 선박건조에 들어갔다.

C&중공업은 이날 목포 삼진공단내 제1조선소에서 블록탑재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용골거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골거치식은 목재선박을 건조하던 시대에 선박의 바닥 중앙에서 선체를 버티는 장대한 골조역할을 하는 용골(龍骨: keel)에 특징인의 이름 첫 글자를 새겨 넣어 용골이 제대로 설치됐음을 인증하는 의식에서 유래한 전통으로 배의 선수에서 선미까지의 바닥을 받치는 중심 뼈대인 용골을 놓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대의 선박건조공법에선 미리 만든 선체블럭을 도크에 앉히는 공정을 말하며 선박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C&중공업이 처음으로 수주받은



선주사인 그리스 타키타린사의 비탈리 티쉬첸코 (Vitaliy Tishenenco) 사이트매니저, C&그룹 임감표 수석부회장 등 선주측과 C&중공업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1호선의 성공적인 건조를 기원했다.

C&그룹 관계자는 “재 수주잔량이 60여척에 이르는 등 2011년말까지의 일감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바, 최상의 조건으로 선별수주에 나서 수익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밝혔다.

한편, C&중공업은 현재 꾸준한 해외 수주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총 60척(약 32억달러 규모)의 벌크선(47척(계약완료)+13척(옵션 및 LOI포함))을 수주해 놓은 상태다.

SK해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SK해운(대표 이정화)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안정적)로 유지하고 발행을 예정중인 제11회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역시 A(안정적)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SK해운이 유조선과 벌크선 중심의 해운선사로서 SK에너지, SK가스 등의 원유 및 가스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및 보유선단 기준으로 국내 4~5위권에 해당되는 대형 해운선사라는 점을 평가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SK해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8,712억원을 기록했다.

한신평은 전체 매출에서 SK에너지, SK가스, 한국가스공사 등과 체결한 원가보상방식의 COA(장기운송계약)가 30% 안팎을 차지하는 등 영업안정성이 양호하고 탱커, 가스, 벌크, 벙커링 등 사업영역 다각화도 양호해 전반적인 사업기반은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8년부터 신조선박이 대거 인도될 예정인

데다 SK에너지와의 COA 계약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수년간 대규모 선박도입이 예정되어 이에 따른 재무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대주주의 지급보증, 풍부한 유동성, 양호한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구조는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STX팬오션 사상 최대규모 분기실적

STX팬오션이 사상 최대규모의 분기실적을 달성했다. STX팬오션은 최근 공시를 통해 올해 1/4분기 매출액 22.5억달러, 영업이익 2.9억달러의 실적(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3.3%, 영업이익은 350.1%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부문별로는 벌크사업이 전년 대비 130.6% 증가한 20.6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1/4분기 실적상승을 주도했고 컨테이너, 탱커 등의 비벌크 사업도 전년 동기 대비 64.6% 증가한 1.86억달러를 기록했다.

신규선박 인도에 따른 특수선 운용 선대의 증가, 중국-유럽·중동간 물동량 증가, 아시아 권역의 컨테이너 신규 노선 개설이 특수선 부문 실적 향상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벌크 시장은 올해 초 BDI 지수 급상승에 따른 조정과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남반구 추수 시즌에 따른 곡물 물동량 증가,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운송 운임 및 운송량이 증가하는 등 지난 해에 이은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벌크 운임 현황을 보여주는 BDI(Baltic Dry Index) 지수도 5월6일 현재 9,855 포인트를 기록

하며 지난 10월에 이어 1만포인트 재돌파를 앞두고 있다.

BDI 상승으로 벌크 전문 선사인 STX팬오션과 대한해운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한해운은 올해 1분기 매출액 6,800억원, 당기순이익 609억원을 기록했고, STX팬오션은 매출액 1조 8,500억원, 당기순이익 2,766억원(국내회계기준 적용)을 기록하며 벌크시황 호황의 최대 수혜선사임을 입증했다.

STX팬오션 관계자는 “올해 초 항만 사고, 호주 홍수로 인한 철광석 등 원자재 운송 중단,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BDI 지수가 잠시 주춤했지만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벌크 시황은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금상선 등 3사

인천-청도-태국서비스 공동운항

장금상선(대표 정태순 회장)은 동아해운, STX팬오션과 공동으로 4월28일부터 인천-중국 청도-태국을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개설되는 인천-태국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KCT : Korea China Thailand Service)는 4월 28일부터 1,44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이 투입돼 인천항을 출항을 출항해 중국 청도를 거쳐 홍콩-방콕-람차방을 주 1회 직항으로 연결하는 공동운항서비스다.

KCT서비스는 경인지역 서비스를 특화해 이 지역 하주들의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청도항에서 태국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한국, 중국, 태국의 해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신규서비스에 참여하는 3사는 앞으로 도 시장 상황과 화물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노선의 지속적인 개발을 적극 모색하는 등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CT(Korea China Thailand Service) 개요〉

△구간 : 인천-청도-홍콩-람차방-방콕-람차방-홍콩-치완-인천

△서비스 개시일 : 2008년 4월28일 인천 출항

태영상선

조경래 이사 상무로 승진

태영상선(대표 박영안, www.taiyoungship.co.kr)은 창립 53주년을 맞아 4월2일 소공동 한진빌딩 6층 본사에서 박영안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우수선박, 장기근속자 및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과 박영안 사장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저녁엔 창립기념 행사로 서소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활 쓰는 헤라클레스 거장 부르텔전” 관람이 이어졌다.

박영안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신사고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53년의 나이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중견기업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당부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1955년 우리나라 해운기업으로는 세 번째로 설립된 태영상선은, 한일 벌크정기선 서비스를 시작으로 하여 POSCO 철강수송 전용선 서비스, 근해항로 컨테이너서비스 등으로 점차 그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다.



한편, 태영상선은 4월1일자로 조경래 이사를 상무 이사로 승진발령하는 임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상무이사 : 조경래(컨테이너영업팀, 물류팀, 인천사무소, 부산사무소 총괄 임원)

△이사대우 : 유동호(경영기획팀/재무관리팀장)

△차장 : 안지연(재무관리팀)

△대리 : 황선장(영업개발팀), 이준호(재래선영업팀), 송주석(컨테이너영업팀)

△계장 : 유희영(컨테이너영업팀), 정인철(운항팀), 이현두(인천사무소)

한진해운

미주 북-남미 서비스 개편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일본 K-Line, 대만 양밍라인, 칠레 해운회사인 CSAV 등과 함께 4월말부터 기존 미국 동부-남미서비스인 NSA(New South America) 노선을 전격 개편했다.

이번에 SNA(South North America Service)로 새롭게 선보이는 남미서비스는 기존 4척의 선대에 1척을 추가, 2,500TEU급 컨테이너선 총 5척을 투입해 운영된다.

SNA는 뉴욕, 볼티모어, 노포크, 찰스턴, 사오 프란시스코, 산토스, 리오 데 자네이로, 살바도르, 푸에르토 까베요, 뉴욕 순으로 기항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 향후 점진적인 시장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남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선복(Vessel Space) 공급을 통해 동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금번 노선은 기존 노선에 비해 미주 남-북미 지역 기항지(Calling Port)가 약 2배 정도 증가돼 동 지역의 대 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앞으로도 시장상황과 운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노선 개편 및 다양한 서비스 노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SNA(South North America Service) 서비스 개요>

△구간 : New York-Baltimore-Norfolk-Charleston-Sao Francisco-Santos-Rio de Janeiro-Salvador-Puerto Cabello-New York(기존 NSA 구간: New York-Norfolk-Savannah-Itajai-Santos-New York)

△투입선박 : 2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서비스 개시 : 2008년 4월말, 뉴욕항 출항

현대상선

아시아-미주 서안간 항로 차별화

현대상선(대표 김성만, www.hmm21.com)이 세계적인 선사들과 협력하여, '아시아-미주 서안' 간 항로를 개편, 서비스를 차별화한다.

현대상선이 속해있는 제휴그룹인 TNWA(The New World Alliance, 현대상선, APL, MOL)는 5월 중순부터 중국, 일본의 주요항만과 미주 LA를 연결하는 PS3 (Pacific Southwest 3) 항로를 개편하면서 기존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미주로 물량을 수송하는 체제를 중국-미주 간, 일본-미주 간 2개 항로 체제로 나눈다. 이는 운송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보다 많은 항에 기항하여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미즈(Shimizu), 오사카(Osaka) 등 일본의 주요 항만을 신규 기항지로 추가해 일본-미주 서안 간 서비스를 별도로 독립시킨 JAS(Japan-American Shuttle) 항로를 개설한다. JAS 항로는 2,800-3,000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 급 컨테이너선 4척이 투입되어 기항지에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주간 정요일 서비스로 운항된다. 5월 14일 첫 서비스를 시작하는 JAS 항로는 오사카(Osaka)-고베(Kobe)-나고야(Nagoya)-시미즈(Shimizu)-도쿄(Tokyo)-LA-오사카(Osaka) 등에 기항하게 된다.

JAS 항로 개설로 기존 PS3 항로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미주 서안으로 바로 기항하게 됨에 따라 상하이(Shanghai)에서 LA까지의 운송시일이 단 11일이 걸리는 업계 최단(最短) 수준의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과 미주 서안을 곧바로 연결하는 개편 서비스는 5월10일 닝보(Ningbo)에서 개시한다.

JAS와 마찬가지로 2,800~3,000 TEU급 컨테이너선 4척이 투입되며, 기항지는 닝보(Ningbo)-상하이(Shanghai)-LA-닝보(Ningbo)다.

현대상선 컨테이너항로기획팀의 양승인 상무보는 “이번 항로 개편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항만과 미주 서안을 더욱 빠르게 연결하고, 일본 지역에서도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TNWA 멤버사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컨테이너 주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아해운

자매결연 어촌계 방문

홍아해운(대표 이윤재 회장)의 김태균 사장과 임직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신진도 어촌계(충청도 태안군)를 방문해 도시와 어촌을 잇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홍아해운 김태균 사장은 “지난해



태안 기름유출사태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세에 물려줘야 함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촌은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어촌이 잘되어야만 도시와 더불어 지역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어촌과 도시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두 어촌계장은 “홍아해운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자매결연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홍아해운은 디지털 전산장비 등 지원품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신진도 어촌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행사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홍아해운 2005년 신진도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구명조끼, 기름 방제작업용 의류 및 장화 등 해양장비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진도 사랑에 앞장서 야외간판설치 등 신진도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한진해운과 MOU 체결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4월30일 10:00 한진해운(사장 박정원)과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산학장학생 제도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산학장학생제도는 해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승선실습과 연계된 자기개발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생은 매년 한진해운에서 장학금지급 인원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목포해양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한진해운에서 선발한다. 이날 한진해운은 박정원 사장을 대신하여 김영민 총괄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진해운은 우수한 해운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목포해양대학교에 1996년과 2004년에 4억5,000여만원의 어학기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수들에게 2001년부터 현재까지 7,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IPA 대표 서정호)는 4월30일 인천

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 한해 동안 인천항을 이용해 화물을 수출하는 포워더 업체에 현금 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포워더 업체란 화주의 부탁을 받고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관, 배송 등 일체의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화주가 특별한 항만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포워더 업체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항만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포워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다양한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판단에 따라 포워더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항에 도입된 포워더 현금 인센티브는 국내 항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동안 광양항에서 포워더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제를 적절히 혜택을 준 사례는 있지만 현금 인센티브는 인천항이 처음이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포워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수도권 수출화물의 인천항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입 첫해라 인센티브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년 금액을 늘리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포워더 인센티브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1,000TEU 이상 인천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한 포워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량 1TEU당 9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단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우량 포워더 업체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1건당 9만원의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한국해양대

원양항해 실습 출항식

한국해양대 2008학년도 1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실습 출항식이 5월7일 한국해양대 내 부두 앞에서 거행되었다.

한국해양대(총장 오거돈)는 이날 2008학년도 1학기 실습선(한바다호, 한나라호) 원양항해 실습 출항식을 한국해양대학교 학내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한국해양대에 따르면 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주도할 우수 해기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에 걸쳐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원양항해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원양항해 실습에는 동남아 4개국 6개항을 27일간의 일정으로 기항하고, 대만 카오슝해양대학교 교수 및 학생 24명이 한바다호에 동승하여 승선실습 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양교간 우호증진 및 체계화된 우리나라 해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해양대 동문CEO 장학회

재학생 180명에게 장학금 전달

한국해양대학교 동문CEO 장학회 회장인 이경재 창명해운 사장은 4월15일 오후 6시 동 대학 후생복지관 5층에서 오거돈 총장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동문CEO 장학회는 일반 동문장학회와는 달리 지역 및 국가발전에 모범이 되는 동문 CEO들이 주축으로 활성화되어 4년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손태원 학생(해사수송과학부) 등 180명에게 장학금 1억8천 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장학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 오거돈 총장님



은 "동문CEO들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현이다" 며 재학생들도 이를 본받아 면학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설명회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에서는 조합 공제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의 계약기간이 금년 5월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선주배상책임공제 재계약에 있어 공제 계약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연안해운업체들의 경영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상보험(P&I)의 현황과 다양한 보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 공제사업의 현황 및 담보내용 등을 비롯하여 공제가입금의 선택, 고정보험료 방식 채택, 담보범위 확대 제공, 보증장(Guarantee) 발급 및 제공, 안정적인 재보험 구성, 안전관리 강화 등 조합 공제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폭 넓은 해외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일본 국토교통성(MLIT)으로부터 P&I 지정보험자로 확정된 내용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